

안전한 수송 통해 고객만족 추구

최적의 포장설계 기술축적 및 연계 운송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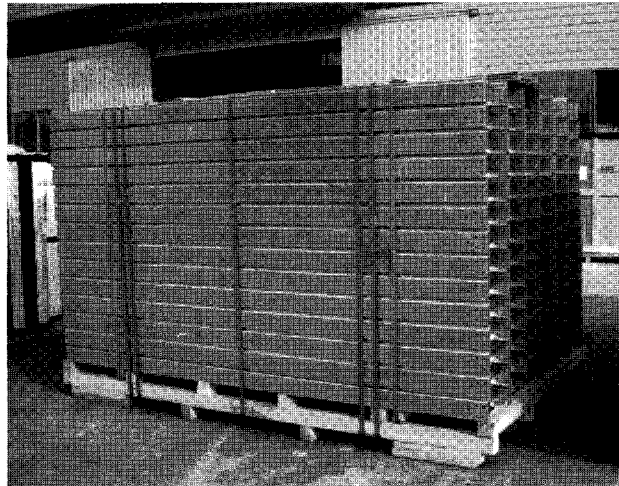
장 세 옥
(주)한국통합물류 대표이사

물류 포장은 최적의 포장설계 기술, 정확한 도착시간, 안전한 수송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최적의 포장을 위해서는 포장 재료에 대한 검토는 물론 실제 포장에서 도착까지 어느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러한 물류 포장의 특성을 완벽히 추구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주)한국통합물류(대표이사 장세옥)를 찾았다.

1975년 5월 한국신광콘포운수로 출발, 83년 한국종합포장(주)를 인수하면서 2001년 4월 상호를 변경한 (주)한국통합물류는 물류포장 전문업체로서 20여년에 걸친 수출포장을 통해 고객의 만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갖고,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 (주)한국통합물류 생산제품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한국통합물류 전경

포장 및 물류관리의 정보화, 서비스의 통합화, 환경보호, 충격완화, 상품보호를 위한 포장 신소재 개발로 국내 물류포장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포장기술이 전무했던 30년 전 포장산업을 개척한 한국통합물류는 75년 당시 세계 최대의 역사로 불린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에 참여를 시작,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했던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며 최적의 포장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포장기법을 개발하며 물류포장업체의 선두주자로서 기반을 닦아 나갔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한국통합물류는 지난 97년 취임한 장세욱 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24여명이 수출·내수용 목상자 제작, 중량물, 각종 기계류, 프랜트류, 건축·건설 자재, 기타 등의 포장업무, 통관업무, 중량물 및 소량화물 운송, 해상운송 업무를 담당하며 최적의 포장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통합물류는 주로 항공수송용 포장에 적합한 합판밀폐형 목상자, 외부로부터 충격, 방수, 방청, 방습처리를 요하는 제품을 포장하는 판재밀폐형 목상자, 방수, 방습을

요하지 않은 제품포장에 적합한 판재개방형 목상자, 대형, 경량물 제품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상자형 목상자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포장물의 성질, 형태, 운송수단, 하역조건, 충격보관들을 고려하여 STEEL BAND 등을 사용하며 포장하는데 적합한 스키드(SKID) 목상자, 팔레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포장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번들(BUNDLE), 주로 운송되는 본제품의 보호나 운송의 용이성을 높이는 화물운반대인 팔레트(PALLET)를 생산하며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Korea Total Logistics

특히 지난 2000년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한 한국통합물류는 품질 제일주의를 통한 고객만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고 지난 해 국립식물검역소 열처리 시설업체 제 137호 등록 및 설비를 신설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국통합물류는 다른 타사에 비해 물류보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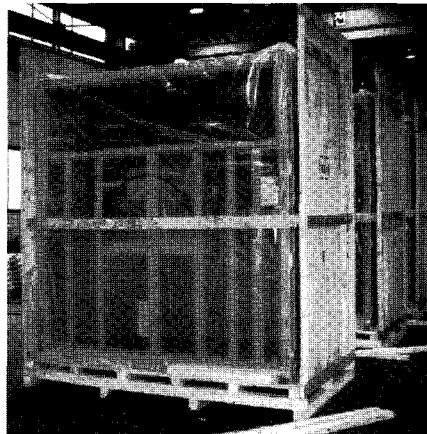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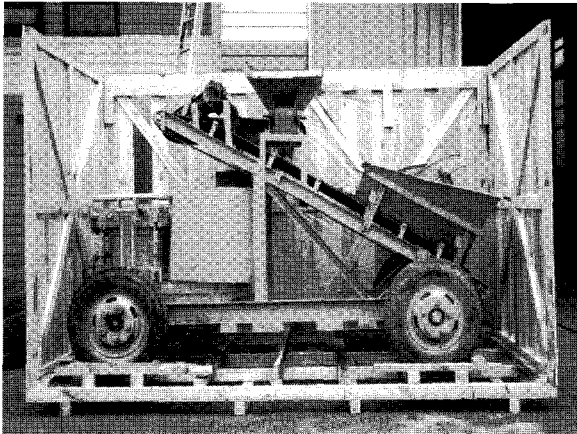
이 탁월해 물품의 특징과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보관관리로 언제나 처음과 같은 상태로 고객의 제품을 지키고 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이 최상의 상태로 안전하게 바이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적의 포장설계 기술축적 및 연계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는 프로그램 자동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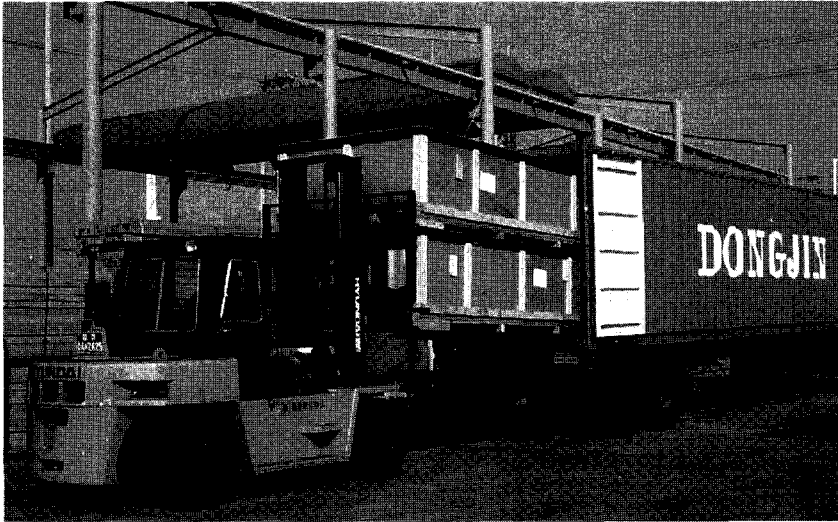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완벽한 상태의 수송을 추구하고 있다.

장세욱 대표이사는 납기시간 엄수와 안전한 수송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 예로 몇 년 전 바이어 요청에 따라 물건을 운송 하던 화물차가 위험천만한 큰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 각종 기계류 및 제품 포장 설계 과정



◀ (주)한국통합물류는 안전한 수송을 위해 연계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통합물류가 제작한 목상자만은 멀쩡한 것을 보고 당시 바이어가 “그정도까지 튼튼하게 제작 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장세욱 사장의 ‘안전 수송’ 강조는 유별나다.

현대건설(주)의 협력업체이기도 한 (주)한국통합물류는 현대건설이 해외현장으로 건설 자재를 안전하게 포장·운송할 수 있게끔 밀거름 역할을 해왔다.

협력업체로서의 충실한 역할로 한국통합물류는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업체들과 나란히 하며 세계 속에 한국의 이

름을 심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된 것이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 직원들은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10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매우 크다.

이것은 흔히 3D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목상자 산업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며 (주)한국통합물류 임직원들간의 화합과 가족애를 엿볼 수 있는 점이다.

“직원들과 족구대회는 물론 틈틈이 바다낚시도 가곤 한다”는 장 사장은 현재 어려운 국내 여건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품 품질을 높이면 고객 만족도도 더욱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장 사장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덧붙여 “현재 침체된 국내 경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영업에 정진하여 한국통합물류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30여년간 물류 포장산업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